

또 해 넘기는 ‘지산IC 우측진출로’...내년 6월엔 첫 삽 뜰까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속도·도로폭 등 안전성 재검토 필요”
실시계획인가·토지 보상 절차도 남아
민선 9기로 지연 가능성 배제 못해
市 “보완 후 2차 회의 재상정 계획”



작공 ‘하세월’ 안전 문제를 이유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6월 착공 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산IC 전경. /김애리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산IC 우측 진출로 개설 사업 연내 착공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며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안전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6월 착공 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향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차질 민선 9기 출범 이후로 공사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개설 공사(1단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를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운영 속도, 차로 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위는 터널 출구와 진출입로 간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도로 폭을 35m에서 32m로 축소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90km에서 80km로 낮추는 설계안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도로 개선 및 제2순환도로 기능 유지 방안 검토, 진출로 개설 필요성 추가 제시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도로 선형 정형화 검토, 주중 교통량 분석 자료 추가 제시, 설계 대안 검토(경제적 손실 정도) 등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설계 대안 및 진출로 개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구조적인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인 만큼 노선 및 사례 분석 내용 등을 추가 보완해 도시계획위에 설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통해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사항 중 일부는 이미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지만 회의 당시 (안전성에 대한) 설

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 지연 가능성도 커졌다.

광주시는 내년 4월 실시계획 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행정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아 착공 일정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6월 착공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 자료를 통해 해소하고 다른 행정 절차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착공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행정 절차상 협의 사항에 따라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산IC는 2018년 민선 7기 때 착공해 2021년 완공 직전까지 갔으나 터널 출구에서 불과 17m 떨어진 좌측에 진출로가 설치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통이 무산됐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측 진출로로 노선을 변경하고 기존 좌측 진출로는 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측 진출로 공사는 당초 2024년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9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올해 상·하반기로 착공 시점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당초 계획 대비 2년 가까이 지연된 셈이다.

지산IC 총사업비는 기존 사업비 77억원에 우측 진출로 재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행정 절차가 추가되면서 발생한 149억원까지 총 226억원이 투입된다. /변은진 기자



수능 대박 중을 울려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 설월여고에서 수험표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 대박 중’을 울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전남시 3만2천683명 응시

86개 시험장 8시10분까지 입실

재학생 증가·‘사탐런’ 최대 변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광주 40개·전남 46개 시험장을 비롯한 전국 1천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관련기사6면

올해 수능은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인한 재학생 증가와 의대 모집 인원 축소, ‘사탐런’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면서 치열한 상위권 변별력 확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수능 응시생은 55만4천174명으로 재학생은 37만1천897명(67.1%), 졸업생은 15만9천92명(28.9%)이다.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9.1% 늘었고, 졸업생은 1.2% 줄었다. N수생은 18만2천277명으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응시 총 인원은 전년보다 3만1천504명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해 대비 885명 늘어난 1만7천731명이, 전남은 1천11명 증가한 1만4천962명이 각각 응시에 총 3만2천683명이 수능을 치른다.

올해 의대 진학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모집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탐구영역 역시 이번 수능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공계열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사회탐구 시험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한 만큼 입실 완료 시간을 숙지해야 한다.

또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결제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마스크 등도 휴대할 수 없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꿈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이 부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기도한다”며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줬다”며 “수험생들도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Today

반려견과함께떠나는 ‘남도한바퀴’ 첫선 5면

남도인물열전-의병장 ‘일휴당 최경회’ 14면

200여명 한자리...광주양궁 미래를 쏜다 16면



A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공모

광주매일신문과 한국관광연구회가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 등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축제 등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 (사)한국관광연구학회

공모부문 및 시상

▶종합대상 ▶콘텐츠 부문 ▶MICE 부문 ▶숙박업 부문
▶축제 부문 ▶여행업 부문 ▶특별 부문

접수자격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dkyo@kaka.com)

접수마감

2025년 11월 14일(금)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